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9월 27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마28:16-20

서론

(1)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속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주시고 항상 준비해주신 만남의 축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지난주도 말씀이 임하니라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현장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한주간으로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완전한 계획으로 부르셨습니다. 완전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있었던나를 부르셔서 새생명을 주시고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게 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1)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어 말씀 따라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받은 복음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각기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2)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절대로 변화되거나 바뀌면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자기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원죄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저주에 빠지고 사단의 종 노릇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받았던 모든 축복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4) 그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에 오시겠다고 약속 하신대로 창3: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 하셨는데 그 방법이 이사야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 저는 사탄에게 손과 발목이 묶이고 눈까지 까만 안대로 가리운 것 같은 최악의 영적상태 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서 배우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마4:19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말씀이 매주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6) 막3:13-15 저희를 원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것을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깨달아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7) 마5: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8) 놀라운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단연코 첫번째는 예배입니다.
9) 먼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져 가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번주간에 내게 주신 언약이고 응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는 알수 없을 만큼 깊습니

다

2) 우리는 하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열정이 있다고 해서 성령인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성령께서 준비하신 만남, 곧 하나님의 시간표속에 있어야 하는데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선에 도착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고정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명걸고 집중하기까지 합니다.
4)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기다리니 하나님이 열어주신대로 전도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5) 이제 전과 같이 들뜨지 않고 나대지않고 설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게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전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6) 마28:16 열한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큰 응답도 체험하고 증거도 확인하고 하였지만 내 개인에 문제에 걸려 있을때는 예수님을 의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7)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 하신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8)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것은 창3장속에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신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오신 그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9) 이후에 복음을 받고 살아난 사람 중에서 나와 같이 함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함께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찾아 세워 다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10) 이제는 이 복음메시지를 237나라와 5000종족을 향하여 전달해야 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세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가 되고,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는 교회이며,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3시대를 여는 주역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있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니스가 되는 축복속에서 열리는 응답인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의 흐름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1) 이제 우리 icsc 성도님들은 한분 한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삶의 현장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과 기도로 24시의 축복을 누리며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 그러할때 준비 하신대로 새생명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생명이 있는 지역으로, 나라로 시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되어 우리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3) 마지막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세계에 전달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